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태성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19세기 조선 자수병풍의  
소재 및 색채를 모티브로 한  
한국풍의 문양작성 연구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이주하

19세기 조선 자수병풍의  
소재 및 색채를 모티브로 한  
한국풍의 문양작성 연구

박태성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이주하

# 인 준 서

이주하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11월

심사위원장 한 영 숙 (인)

심사위원 박 태 성 (인)

심사위원 이 경 아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유럽에서는 17세기 이후 차를 중국의 자기 잔에 마신다는 것이 부의 상징이 되면서, 중국의 자기에 대한 높은 선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풍의 장식 예술, Chinoiserie가 18세기 유럽에서 유행하게 되고, 이어서 19세기에는 일본풍의 Japonism (japonaiserie)이 장식 예술로써 양식화되고 이것 역시 대유행을 하게 된다. 이러한 17세기 동·서교류의 상징적 사건이자 유럽인들이 동경하는 아시아 문화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양식의 정립과 그것을 지칭할 수 있는 용어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적 문화 유형의 실체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우리 고유의 장식에 대한 정체성 설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8세기의 Chinoiserie와 같이 장식 예술의 한 부분으로써 양식화된 한국풍의 존재에 대한 가정을 위해 그 양식풍의 명칭을 'Corée Déco'로 설정하였다. 이를 전제로 하여 도자 장식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한국풍과는 다른 신한국풍의 문양을 Corée Déco풍의 기준과 제작방법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19세기 조선의 자수병풍에서 보여지는 화제(畵題)를 중심으로 각각의 스토리와 표현내용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화제의 활용방법에 따른 문양 작성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도자장식의 문양으로써의 활용방법을 모색하였다.

실제 도자 문양의 표현과정에 있어서는 색채 중화 실험에 의한 색상제작과 색의 배치 및 조합 수의 제한에 따른 양식화된 특정색상을 제시함으로써

Corée Déco 도자 장식의 기준으로 삼고자하였다.

작품제작에 있어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도자 장식의 양식을 응용하여 문양을 활용하는 방법과 제작자의 주관적인 감성에 문양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양식화된 도자장식을 테이블웨어와 실내용품에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조선의 대표적인 장식 예술인 자수병풍에서 보이는 한국적 요소의 재구성과 조합 및 변형을 통해 새로운 한국풍인 Corée Déco풍의 도자장식 표현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내용과 방법 .....	2
II. 본론 .....	4
1. 19세기 조선의 자수병풍에 나타난 한국적 문양의 특성 .....	4
1) 자수병풍 문양의 다양성과 표현적 특징 및 내용 .....	4
2) 자수병풍에 사용된 오색(五色)과 간색(間色)의 특징 .....	11
2. Corée Déco풍의 문양 제작방법 .....	16
1) 전통적 소재의 재구성 .....	16
2) 색채의 양식화 과정 .....	21
3. Corée Déco 장식을 통한 작품 설명 .....	26
III. 결론 .....	39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목차

【표 1】 ‘10첩 문방기명도’의 간색의 사용 예와 사용 방법 .....	12
【표 2】 ‘사물의 교체’에 의한 문양작성 .....	17
【표 3】 ‘소재의 특징 포착’에 의한 문양작성 .....	18
【표 4】 ‘소재의 상징화’에 의한 문양작성 .....	20
【표 5】 색채 중화 연구 실험 표 .....	22
【표 6】 색채 구성 표 .....	23

## 참고도판 목차

【참고도판 1】 10첩 문방기명도 1~4첩 .....	5
【참고도판 2】 책가문방도 .....	6
【참고도판 3】 10첩 문방기명도 자수 표현 확대 이미지 .....	7
【참고도판 4】 10첩 어락도 7~10첩 .....	8
【참고도판 5】 8첩 경직도 1~4첩 .....	9
【참고도판 6】 ‘10첩 어락도’의 간색의 사용 예와 사용 방법 .....	15
【참고도판 7】 ‘8첩 경직도’의 간색의 사용 예와 사용 방법 .....	15
【참고도판 8】 백자 청화 선인무늬 접시 .....	26
【참고도판 9】 중국 크락자기 양식의 가문문장이 있는 접시 .....	26

## 시작품 목차

【작품 1】 물고기 장식 주황불 .....	27
【작품 2】 수초 장식 찻잔 세트 .....	28
【작품 3】 수초 장식 세트 .....	29
【작품 4】 물고기 장식 화병 .....	30
【작품 5】 패랭이꽃 와인잔 .....	31
【작품 6】 물고기 장식 조약돌 .....	32
【작품 7】 수선화 세트 .....	33
【작품 8】 주전자 세트 .....	34
【작품 9】 빨강집 I .....	35
【작품 10】 빨강집 II .....	36
【작품 11】 마을 .....	37
【작품 12】 하늘집 .....	38

# I. 서 론

## 1. 연구목적

최근 한국의 다양한 예술분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것에는 역시 한국 고유의 정서와 독특한 전통적 미의식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우리만의 고유한 미가 세계인들에 선호되는 현상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어쩌면 이 날이 조금은 늦게, 그리고 얄게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의 미감과 조형적 색채는 ‘한국적 미감’ 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모든 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는 설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Chinoiserie<sup>1)</sup> 또는 Japonism (japonaiserie)<sup>2)</sup> 이라는 중국과 일본의 문화 또는 미의식을 대변하는 단어에서 우리는 그 정체에 대한 보다 선명한 인상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삶의 결정체로 승화된 독특한 한국의 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미에 대한 정의에 있어 한국의 장식예술에서 보여지는 특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만의 미감을 구체적인 언어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도자의 특징을 양식화에 입각하여 한국풍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장식품에 해당하는 자수명품의 문양과 색채를 조합 또는 변형함으로써 구체적인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의 청화백자는 최근 중국과 일본 자기와 구별된 독특한 미감으로 인해

---

1)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근세 유럽 미술에서 성행한 중국적인 기풍. 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예품  
2)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 예술 전반에서 일본의 영향이 나타나는 현상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으나, 이는 극히 최근의 일이며 17세기 유럽의 자기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된 세계 교류의 중심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만약 우리의 청화백자가 당시의 세계사의 흐름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아마도 중국이나 일본의 문화나 화풍을 선호하는 현상인 Chinoiserie 나 Japonism 과 같은 한국풍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용어가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면에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도자기에 있어 한국풍 또는 진화된 ‘신한국풍’이라는 구체적인 양식화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애용되고 보존되어 온 장식적 요소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새로운 미감 도출과 여기에 전통적 미감이 어우러짐으로써 우리만의 미감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장식적 특징과 미적 감각을 Chinoiserie 와 Japonism 과 같이 신한국풍을 나타내는 단어로써 ‘Corée Déco’ 라는 용어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도자기에 있어 우리만의 독특한 미감을 양식화란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내용과 방법

도자기에 있어 하나의 특정된 느낌을 부여함에 있어 ‘양식화’의 과정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양식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문양의 표현방법과 색채 등의 매우 치밀한 기준이 있기 나름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즐겨 사용될 수 있는 특정의 장식 도출을 통해 신한국풍의 Corée Déco라는 구체적인 양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조선시대의 자수병풍에서 보여지는 사물, 자연물 그리고 생활 풍경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그것의 문양과 색채의 요소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식화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본론의 제 1장에서는 19세기 자수병풍에 나타난 한국적 문양의 특성의 고찰을 통해 문양의 다양한 소재와 특징적 표현 및 내용 그리고 색채를 정리하였다.

제 2장에서는 Corée Déco풍의 문양 제작방법으로써 1장에서 고찰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문양의 소재를 새로운 문양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색채의 표현에 있어서도 자수에 즐겨 사용된 오색과 간색<sup>3)</sup>을 중심으로 기존 색상의 조합 또는 색채의 증화를 통해 새로운 색상제시와 도자장식에 사용할 수 있는 하회 채색 안료 실험을 실시하였다.

제 3장에서는 과거 교류의 중심에서 유행했던 Chinoiserie 와 Japonism 의 장식 양식들에서 이루어진 전통적인 도자 장식을 응용하는 방법과 주관적인 제작자의 감성에 따라 제작하는 방법을 통해 Corée Déco 풍의 양식화된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테이블웨어와 실내용품을 대상으로 장식을 적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Corée Déco풍의 도자장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3)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가운데 둘 이상의 색을 섞어낸 색, 회화에서, 명암의 연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칠하는 색

## II. 본 론

### 1. 19세기 조선의 자수병풍에 나타난 한국적 문양의 특성

#### 1) 자수병풍 문양의 다양성과 표현적 특징 및 내용

병풍은 기록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원래의 목적은 실내 보온을 위한 것이었다. 초기에는 귀한 물건으로써 귀족들만 사용하던 병풍이 차츰 민간으로도 퍼지게 되었고 그 장식 재료와 내용에 있어서도 그림과 글씨 외에 자수와 같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지게 된다.<sup>4)</sup>

자수병풍의 내용에 있어서는 당시의 다른 미술들과 마찬가지로 선(善)을 염원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사람들이 집안의 길흉사(吉凶事)에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병풍을 장식해놓았다는 점에서는 일반 회화병풍과는 큰 차이점은 없다.<sup>5)</sup>

그러나 자수병풍의 소재 또는 자수라는 특성을 주의해서 보면 세부적인 표현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수병풍은 섬유가 가지는 독특한 질감으로 인하여 회화병풍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장식의 소재와 표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회화병풍과는 달리 장식성이 뛰어나고 표현에 있어서도 간략화된 상징적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다.

조선의 자수는 공적 세계로부터 차단된 삶을 살아야 했던 당시 여성들이 자신들의 장식성과 교양을 표현해내면서 발전하였기에 소재 및 표현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수화와 같은 회화는 주

4) 허동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 문화』 (현암사, 2006), p.156.

5) 허동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 문화』 (현암사, 2006), p.156.

로 남성작가에 의해 그려졌으며 그들에게는 집 밖의 대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와 다르게 당시 여성들은 집 안에서 교육받고 표현할 수 있는 자수라는 방법만을 통해 자신의 예술세계를 펼쳐야 했기에 신사임당과 허난설헌과 같은 예외적으로 이름을 남긴 몇몇 작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 단순한 바느질로 시작하였지만 장식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한 자수문화의 내용적 특징은 작가 자신이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소한 환경을 묘사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소재선정에 의한 독창적 표현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sup>6)</sup>

특히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19세기경의 자수병풍은 이러한 특징을 뚜렷이 보여주는데 그것은 당시 중국문물의 유입은 당시 조선의 생활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미술분야의 영향 또한 급격히 확산되었다고 여겨진다. 특히 민간의 여성들에 의해 제작되었던 자수병풍의 표현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중국문물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용품이 소재로 등장하였으며 그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조형성에 더해 조선 자수병풍만의 기법과 표현이 더해져 독특한 미감이 완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19세기 조선자수 병풍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0첩 문방기명도’【참고도판1】이다.



【참고도판1】 10첩 문방기명도 1~4첩 (작가미상, 19세기, 공예박물관 소장)

6) 허동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 문화』 (현암사, 2006), p.12, 21~22.



【참고도판2】 책가문방도 (이형록, 19세기,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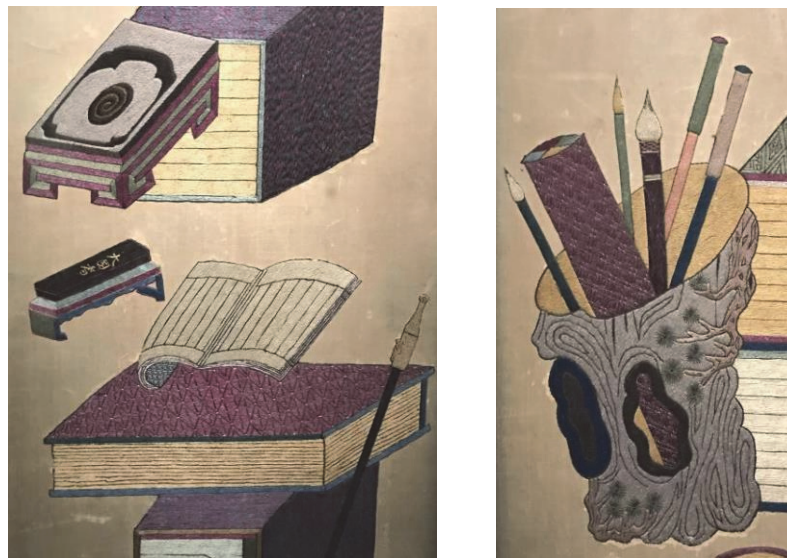
‘10첩 문방기명도’는 회화병풍으로 제작되었던 ‘책가도’를 자수병풍으로 제작한 것이다. 책가도는 책이 귀했던 시절에 글공부 권장을 위해 중국의 귀한 물건이 진열된 장식장을 그린 ‘다보각경’에서 영감을 받아 책이 쌓여있는 모습으로써 제작되었으며 18세기 후반 정조(正祖, 1752~1800) 시기에 이르러 본격적인 보급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책가도를 주제로 한 회화병풍과 자수병풍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참고도판2】의 ‘책가문방도’에서 보여지는 색상, 소재, 구도 등은 자수병풍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도판2】는 궁중화원 이형록의 작품으로, 차분하고 중후한 색채와 잘 진열된 책들과 기물들의 구도를 볼 수 있으며 그 묘사는 사실적이고 섬세하다. 이에 반해 【참고도판1】의 경우는 밝고 따뜻한 색감을 통해 재미있는 인간성을 느낄 수 있고 당시 서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문방사우, 도자기, 안경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소재들이 독특한 구도를 통해 표현되어 있다. 자수 특유의 소재적 특성을 더해 다채롭고 화려하며 재미있는 표현이 19세기 자수병풍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자수병풍의 책가도 주제는 책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하려는 원래 목적보다,

규방공예로써 더욱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각종 생활용품들을 화면크기에 비해 넘치는 수로 배치하여 당시 사람들의 부에 대한 과시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외에 과일을 각 면에 포인트 요소로써 활용한 점으로 보아 자손의 중요성을 강조한 규방 공예의 특징도 느껴진다. 구도에 있어서 세부적인 표현을 보자면 책의 시점을 왜곡하여 방향 전환을 주어 시각적 재미의 극대화를 느낄 수 있고, 아슬아슬하게 책 더미 위에 과일을 올려둔 모습이나 바닥면으로 설정된 비어있는 공간에 기물을 불규칙하게 올려둔 모습을 보면, 당시 조선의 왕실의 책가도 병풍과는 다르게 자유롭고 정적이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진다.

이와 동시에 각각의 사물의 질감과 무늬 표현을 붓터치가 아닌 실이라는 재료의 스티치로 묘사하면서 직선과 곡선의 깔끔한 조화가 독특한 조형적 느낌을 준다.



【참고도판3】 10첩 문방기명도 자수 표현 확대 이미지

【참고도판3】을 통해 자수병풍의 소재표현에 있어서 바느질만의 독특한 스티치 질감과 표현의 특징적 요소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자수의 특성상 붓에 의한 농담과 섬세한 묘사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의 선적인 요소와 그 경계에 의해 구분되는 면의 조화를 통해 회화의 리얼리즘적 표현과는 다른 미니멀적인 간결한 묘사를 통해 사물을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명료하게 부각시켜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표현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자수만의 장점과 뾰족하게 끊어지는 느낌의 스티치의 독특함이 잘 어우러져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다른 회화병풍들과는 다르게 관찰한 대상의 특징을 극대화하고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된 묘사의 배치를 통해 상징성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점이 원시적이면서도 독특한 인상을 풍기는 이유라고 생각 되어진다.



【참고도판4】 10첩 어락도 7~10첩 (수방상궁, 19세기, 소장처 불명)

【참고도판4】의 ‘10첩 어락도’ 역시 19세기에 제작된 자수병풍으로써, ‘10첩 문방기명도’에서 보여지는 조형적 표현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소재가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구도와 색채의 표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느낌

을 주고 있다. 【참고도판4】의 그림은 물고기를 비롯한 해양 동식물들의 모습을 통해 물속 풍경을 묘사하였는데, 각각의 동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과 형태 그리고 울동감이 높은 완성도를 가진 장식성을 보여준다. 이 병풍은 철종(哲宗, 1831~1863)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강화도의 각종 물고기와 수초를 수놓아 제작했다고 전해진다.<sup>7)</sup>

임금을 위한 자수병풍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인상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수려하고 자유로운 물고기들의 움직임과 수수한 인상이 특징이다. 이외에 다른 특징으로서는, 해양동물과 수초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만 물속이라는 인상보다는 화조도와 마찬가지로 회화적 상징성을 위한 의도적인 공간 배치가 느껴진다는 점이다. 중앙에 물고기가 헤엄치고, 가장자리에는 안정감을 위해 진한색의 바위를 무게감 있게 배치하였는데 이것은 회화양식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초 역시 꽃과 같은 색감과 형상으로 표현함으로써 마치 한폭의 화조도를 연상시키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보통의 병풍은 여러 폭의 병풍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구성하는데 반해 이 병풍은 각 폭마다 독립된 화면으로 여러 공간을 한 자리에 모은 듯한 특이한 느낌을 준다.



【참고도판5】 8첩 경직도 1~4첩 (작가미상, 19세기, 소장처 불명)

7) 허동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 문화』 (현암사, 2006), p.220.

10첩 어락도'에서 보여지는 회화적 표현과 대비되는 작품으로써 '8첩 경직도'【참고도판5】를 들 수 있다. 경직도는 귀족의 자제들에게 농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농민의 수고로움을 잊지 말라는 교훈적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병풍의 각 화폭은 계절의 순으로 농사짓는 풍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목화따는 장면, 밭갈이 하는 장면 그리고 타작하는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sup>8)</sup>

군상의 종류와 자세 또한 다양하고 사실을 관찰한 듯한 생동감 있는 묘사가 보여지는데, 아이를 옆고 있는 남자 어른과 바다에 앉아 일하는 아낙들의 모습은 간략화된 형태로 더욱 뚜렷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 동물, 식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소, 개, 닭의 표현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바느질로 효율적이고 유머러스한 표현을 통해 만든 이의 순수한 조형미 잘 표현하고 있다. 소재에 있어서도 농기구와 벗짚 그리고 계절을 보여주는 나무 등 당시 농촌 풍경의 세세한 요소들을 표현함으로써 여성들의 섬세한 관찰력과 소소한 생활환경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경직도에서 보여지는 산, 나무, 집 그리고 사람들의 색채, 크기 대비와 묘사의 정도를 통해 한국의 미의식도 엿볼 수 있다. 화면 안에서 산은 가장 뒤쪽에 위치해 있지만, 가장 앞에 위치해 있는 건축물과 같은 채도인 선명한 색채로 표현되었다. 또한 소재들의 크기들이 모두 비슷하게 표현되어 왜곡된 대비를 보여주는데, 이와 같은 요소는 어락도에서 보여지는 회화성과는 극히 대비되는 장식적 표현으로써 마치 현대의 디자인을 보는 듯하다.

이상 19세기 자수병풍에서 보여지는 표현 내용과 조형표현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것에는 사물, 동식물, 농촌 풍경 등 다양한 소재 선정, 그리고 구획을 나누어 다채로운 색감과 무늬의 설정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미니멀적

---

8) 허동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 문화』 (현암사, 2006), p.168, 175.

표현 방법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형표현의 주요 요인은 자수의 바느질과 실이 갖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써 여기에 회화적 표현과 장식적 표현을 더해 사용된 각각의 소재에 독특한 조형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타 분야에서 볼 수 없는 색채와 소재표현은 자수 특유의 형상미를 갖고 있기에 이를 활용한 문양 및 그림의 구성에 있어 새로운 조형표현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자수병풍에 사용된 오색(五色)과 간색(間色)의 특징

한국 고유의 미술에서 보여지는 대표적 색상은 오색이라 하여 황(黃), 청(靑), 백(白), 적(赤), 흑(黑)의 5가지 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색채구성은 한국의 전통 미술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한국의 정서적 미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 고유의 미적 요소 중 색동저고리, 오색 고명, 단청 그리고 조각보 등의 공예품이 이러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예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오색에서 더 나아가 간색(間色)이라는 개념 역시 한국 전통미술의 색감으로써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간색은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가운데 둘 이상의 색을 섞어낸 중간색 계열의 색상으로써 회화에서 명암의 연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중간색 역할에 해당하며 이는 자수병풍을 비롯한 한국 고유의 전통미술에서 역시 보여지는 색채적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색과 함께 대표적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색감을 이루고 있는 황색계열의 간색인 주황색, 청색 계열의 간색인 청록색, 적색계열의 간색인 자주색, 백색의 간색인 미색, 흑색의 간색인 짙은 갈색을 오간색(五間色)으로 설정하고 오색과 오간색을 사용하여 자수병풍의 독특한 색채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의 공예에 있어서도 단순명쾌하고 대비적이라는 특징의 오색 또는 수묵담채화와 같이 극도로 절제된 무채색만이 강조되어온 결과 간색에 대해서는 간과되어온 것이 사실이나 간색 나름의 전통적 색감으로써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수병풍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 문양의 대표적인 색상인 황, 청, 적, 백, 흑은 물론이고 주황색, 청록색, 자주색, 갈색, 미색을 포함한 다채로운 간색이 함께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주목받지는 못했다. 자수병풍 작품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한국의 색감은 채도와 색상에 은은한 변화를 가진 색실과 금색실을 사용하여 다양한 간색들이 표현되었으며 그 느낌 또한 매우 다채롭다. 흑색과 백색에 있어서도 감색(紺色)과 미색(米色) 등 미묘한 간색의 차이를 사용하여 폭넓은 색상 영역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의 【표1】은 ‘10첩 문방기명도’에 사용된 간색의 예를 정리한 것이다.

【표1】 ‘10첩 문방기명도’의 간색의 사용 예와 사용 방법

원색	간색 사용 예	간색 사용 방법
황색		-다른 소재와 구분되는 금속 재질의 안경을 표현하기 위해 원색에 해당하는 노랑색 대신 중간계열의 금색으로 표현함
		-적색과 혼합한 주황빛, 청색과 혼합한 녹색빛, 진한 개나리색의 황색으로의 색상변화를 통해 한 계열의 색상이 낼 수 있는 다양한 인상을 표현함
청색		-청색의 표현에 있어서 밝은색은 백색을 혼합하여 하늘색으로, 중간색은 청록색으로, 어두운 청색은 감색을 사용하여 표현함

		-회색이 혼합된 듯한 저채도의 청색을 활용하여 전체 화면의 톤을 중화시키고 색상의 균형을 잡아 줌
적색		-적색의 비중이 높은 자주색을 통해 난색을, 청색의 비중이 높은 자주색을 통해 한색을 각각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색상을 표현함
		-적색과 백색의 혼합색인 홍색을 자주색과 함께 배치하여 적색이 다채롭게 대체될 수 있음을 보여줌

【표1】에서 보여지는 자수병풍의 색상적 특징은 색의 혼합을 통한 중간색인 간색(間色)의 사용을 늘리고 고채도의 색의 사용을 줄여 부드러운 색채 간 연결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다른 소재들과는 대비되는 금속 재질의 안경을 금색실로 표현하여 보통의 황색의 물건과의 질료적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황색을 주황색, 풀빛 황색, 개나리색 등의 넓은 색상영역으로 표현하여 한 가지 색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색에 있어서는 채도와 명도가 차이나는 회색을 섞은 듯한 옅은 하늘색, 청록색 그리고 감색빛 청색을 배치하여 밝고 화려한 색실의 사용 중에도 어지럽지 않게 전체 화면의 톤을 중화해주고 있다. 적색의 경우에도 간색인 자주색의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분홍색, 옅은 제비꽃색, 짙은 자주색 등 한색과 난색을 넘나드는 다양한 색채가 적색을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간색의 활용은 오색보다 더 많은 색상의 수가 한 화면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색상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함과 동시에 부드럽고 완화된 느낌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도판6】의 ‘10첩 어락도’에서 발견되는 색채적 특징은 오색의 사용 비율과 면적을 확연히 줄인 점이다. 오색 중 적색만을 고채도의 강조된 색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색의 경우 원색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청색의 간색인 청록색의 톤을 중화시켜 전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황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밝고 분명한 원색의 색상보다는 적색과 황색의 중간색인 붉은 갈색만이 화면을 지배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는 기존의 한국풍의 색감으로 여겨지곤 하는 강렬한 오색빛 색감과는 구별되는 점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자수병풍인 만큼 다채로운 색실이 사용되지만 전체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먹을 사용한 회화와 같이 절제되고 차분한 색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참고도판7】의 ‘8첩 경직도’는 간색을 고채도로써 활용하여 화려한 인상을 주는 점이 특징적이다. 적색과 황색의 중간색인 주황색의 사용이 매우 빈번한데, 똑같은 주황색을 통해서 붉은 면을 모두 묘사한 것이 아니라, 적갈색, 굴색 등의 사용을 통해 주황색 계열을 다채롭게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서 자수병풍의 색상영역은 화려한 원색만을 통해 표현된 것이 아니라 세밀하고 미묘한 색상 계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붉은 계열 색상을 주로 고채도로 사용하면서도 화면의 통일성과 안정감을 유지한 부분이 인상깊다고 여겨지며 이는 사용 색상의 다수가 간색으로써 활용되었던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다채로운 색상과 채도뿐만 아니라 명확한 명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상 19세기 자수병풍에서 사용된 오색과 간색의 활용이 주는 색채적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것은 색상 간 부드러운 연결과 명확한 소재 구분

그리고 색실을 다채롭게 사용하면서도 정돈된 인상을 주는 데에 있어서 오색과 간색의 조화로움이 도움이 된다는 점이였다. 다른 공예품이나 전통미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수병풍에서 더욱 명확하게 보이는 이러한 특성은 작품의 완결성을 위해 깊이있는 색채적 이해가 동반되어 작품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오색과 간색을 포함한 폭 넓은 색채의 사용은 앞으로의 문양 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색의 인상을 통한 장식 표현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도판6】 좌) ‘10첩 어락도’의 간색의 사용 예와 사용 방법

【참고도판7】 우) ‘8첩 경직도’의 간색의 사용 예와 사용방법

## 2. Corée Déco풍의 문양 제작방법

### 1) 전통적 소재의 재구성

장식에 있어 문양은 표현 정도에 따라 단순한 꾸밈 이상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이러한 문양은 오랜 기간동안 세계 각 지역의 문화와 사회성을 반영한 형상과 색상으로써 진화, 발전되어 왔다. 특히 Chinoiserie 또는 Japonism (japonaiserie) 이라는 중국과 일본의 장식예술을 대변하는 용어에서 우리는 그 개념과 실체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장식예술의 특징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용어와 개념 정의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의 다양한 분야의 미적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 한국적 미감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인 언어와 기준을 통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점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한국의 대표적인 장식예술인 자수병풍에서 도출된 한국적 장식의 특성을 활용하여 21세기의 한국적 미감을 더한 장식예술을 'Corée Déco'라는 새로운 용어로 정의하고자 하며 이것은 Chinoiserie 와 Japonism 이 갖는 의미와 같이 Corée Déco풍 이라는 포괄적인 고유의 한국적 양식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와 같이 '한국적'이라는 기준의 제시를 통해 우리 고유의 장식적 요소를 조합 및 변형함으로써 한국적 이미지가 구체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Corée Déco는 도자기 장식에만 국한되는 양식은 아니며 다른 예술 및 문화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확산과 활용을 통해 한국적 장식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장식적 근거로 앞장에서 살펴본 자수병풍에서 보여지는 한국적 요소를 Corée Déco풍의 기준에 맞추어 나름의 한국적 미감의 문양으로 제

작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Corée Déco풍의 기준의 제시에 있어 설정 방법과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수병풍을 모티브로 한 Corée Déco풍 장식문양 제작의 기준으로 ‘사물의 교체’, ‘소재의 특징 포착’ 그리고 ‘소재의 상징화’와 같은 3가지의 기준 설정에 의해 문양을 제작하였다.

【표2】 ‘사물의 교체’에 의한 문양작성

	19세기의 사물	20세기의 사물			하회 장식의 결과물
‘10 첩 문 방 기 명 도’ 의 부 분 도					
					
					

【표2】는 ‘10첩 문방기명도’에 그려진 소재를 모티브로 ‘사물의 교체’라는 기준 설정을 통해 문양작성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설정의 이유는 각각 현재의 시대상과 과거의 시대상을 반영한 소재간의 교체를 통

한 새로운 스토리 구성과 장식적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방기명도는 중국의 다양한 문물이 도입되는 19세기에 제작되었던 만큼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20세기 중반경의 상황도 텔레비전, 전화기 등의 새로운 생활양식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문방기명도는 19세기 당시의 여성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발견되는 귀중품과 물건들을 수놓은 것으로 이러한 사물들에 자신들의 일상과 추억을 투영시키고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세기의 시대상을 담은 물건들로 교체하면 19세기에 제작된 문방기명도라는 공통된 양식에 20세기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시대상의 변천에 따른 소재의 변화를 모티브로 상호간의 교체 또는 치환이라는 행위를 통한 소재의 재구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총 망라하여 한국인이 공유해 온 고유의 생활적 감성을 담은 특정의 스토리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는 기존에 정서적인 개념으로써 존재해온 한국풍이라는 것을 시각적인 기준과 실체를 제시하여 현재에도 다양한 장식 예술로써 활용되기를 바라는 Corée Déco풍 문양을 제작하는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표3】 ‘소재의 특징 포착’에 의한 문양작성

	원본	소재의 특징 포착		
‘10첩 어락도’의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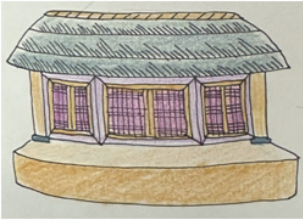




【표3】은 ‘10첩 어락도’의 문양을 모티브로 새로운 문양 제작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원본의 문양들은 자수병풍의 특질 상 바느질에 의한 스티치의 질감이 형상표현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수 재질의 특징을 문양제작에 활용함으로써 자수에서 보여지는 간략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유연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용이한 회화병풍과는 다르게, 스티치의 영역에 따른 질감과 색채가 구체화되고 연결되기에 매우 독특한 조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문양 또한 간략화되고 상징성이 강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뾰족한 스티치의 느낌으로 유발되는 원시적인 분위기 연출과 극적인 꺾임을 통한 직선 요소를 강조하는 방법 등은 사물을 미니멀적으로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그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장식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0첩 어락도’의 물고기와 해양동물에서 보여지는 날카로운 선들 또한 스티치의 특성에 의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문양제작을 진행하였다. 수초의 경우 원본에서 발견되는 종류에 다양한 식물의 형상을 추가하였다. 문양의 제작에 있어 자수의 특성과 재료적 특질 등

의 고유 속성을 활용한 문양 디자인은 독특한 느낌과 모티브 또는 소재 나름의 필연적인 표현적 특성을 얻을 수 있기에 개성 있는 문양제작에 있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 된다.

【표4】 ‘소재의 상징화’에 의한 문양작성

	원본	소재의 상징화
‘8첩 경직도’ 의 부분도		
		
		

【표4】 는 ‘8첩 경직도’에서 보여지는 전통가옥들이 부여하는 표현에 특정의 의미를 상징화 할 수 있는 형태로 문양을 재구성하였다.

원본에서는 전통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그 계절의 풍경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풍경 속에 존재하고 있던 그 당시 가옥을

통해 기존의 한국의 장식문양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건축물을 모티브로 문양을 제작하고자 했다. 한국의 고유한 미감에 기반한 문양을 제작하는 만큼 단순히 현대인들의 집 형태로 바꾸어 현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숙하게 여기는 가옥의 요소인 기와 지붕, 초가 지붕, 창호지, 기둥, 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전통적이지만 현대인들의 정서에 있어서도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핵심적이고 단순화된 건축요소들의 묘사를 통해 일정 스토리가 담긴 건축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자수의 특성상 생략되고 간략화된 이미지가 더욱 상징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Corée Déco의 문양디자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Corée Déco 문양 제작을 위한 전통적 소재의 현대화 방법으로써 ‘사물의 교체’, ‘소재의 특징 포착’, ‘소재의 상징화’이라는 3가지 과정을 기술하였다. 자수병풍의 독특한 조형표현의 활용을 통해 한국 고유의 장식요소를 포함한 현대적인 문양으로의 표현이 Corée Déco 문양으로써 작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색채의 양식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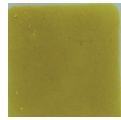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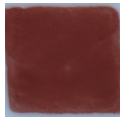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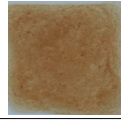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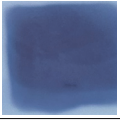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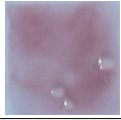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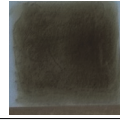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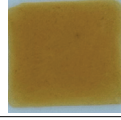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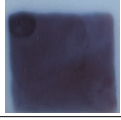

장식예술에 있어서 문양의 색상은 그 양식의 이미지를 특정하는 상징적 요소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인식되는 미적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양과 색채의 조화에 의한 특정한 느낌 또는 이미지 제시에 의한 양식화 과정을 위해서는 색채의 선정과 조합은 매우 필수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Corée Déco풍의 문양에 있어서도 한국적 미감이라고 할 수 있는 색채의 제시는 필수적 요소이고 이를 위한 특정한 기준과 방법이 필요하다.

본론 1장에서 자수병풍을 통해 규정한 오색과 간색의 성질과 특징은 색채간의 혼합 또는 조합에 의해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며 조절 여부에 따라 한국적 정서가 담긴 색상으로의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방법 으로서는 자수병풍에서 도출된 오색의 표현에 있어 황, 청, 적, 흑, 백색을 원 색으로 규정하고 원색의 혼합을 통한 간색을 제작하고자 한다.

실제 제작에 있어서는 도자기의 하회안료에 해당하는 고화도 안료를 기준으로 오색의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간색의 제작은 오색의 혼합 또는 간색에 해당하는 안료를 사용하였다. 【표5】는 도자기 하회 안료의 실험 결과 중에 한국의 오색과 간색 그리고 그 색상들 간의 혼합을 통한 새로운 간색을 도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5】 색채 중화 연구 실험 표

	황	청	적	흑
오색				
	개나리색	하늘색	다홍색	짙은 검색
간색				
	주황색	제비꽃색	분홍색	카키빛 갈색
색상 혼합 연구				
	굴색	청록색	자주색	보랏빛 먹색

실험에 사용한 원색에 해당하는 오색 중에 백색은 백색 유약에 의한 기면의 색상을 바탕으로 하기에 제외하였다. 기존의 하회안료에 있어 자수병풍의 간 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주황색, 제비꽃색, 분홍색, 카키빛 갈색을 간색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외의 간색은 색상 혼합을 통해 중화된 색채를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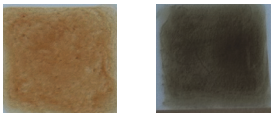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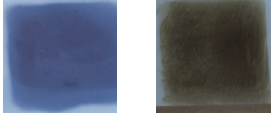

이 과정을 통해 Corée Déco의 구체적인 색상 종류로는 오색에 해당하는 노

랑색, 하늘색, 다홍색, 감색, 백색과 더불어 황색계열의 주황색과 갈색, 청색의 제비꽃색과 청록색, 적색의 분홍색과 자주색 그리고 흑색의 카키빛 갈색과 보랏빛 먹색 등 총 12가지 색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미술의 고유한 오색이 다채로운 계열과 채도 그리고 명도를 가진 간색과 조화롭게 연결되어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은 과정으로 도출된 색상의 실제 적용 과정에 있어서는 엄격한 색상수의 제한을 통해 조합된 이미지를 실제문양에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표 6】의 예와 같이 색상의 사용에 있어 2~5가지의 조합을 통한 특정한 색상의 군집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당삼채 또는 오채자기와 같이 특정한 색의 수를 제한하여 특정한 색감을 만들어낸 전통적인 양식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색상조합의 방법으로써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특정 색상의 양식을 이채자기, 삼채자기, 사채자기, 오채자기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통한 색채의 양식화는 본 연구의 Corée Déco풍에 있어 일정부분의 색상기준으로 삼아 실제 채색과정을 통해 특정한 색감의 문양을 제작하였으며 결과는 【표6】과 같다.

【표6】 색채 구성 표

자기의 종류	색채 조합	내용
2채자기	 주황색 + 카키빛 갈색	
	 제비꽃색 + 카키빛 갈색	

3채자기	 <p>자주색+갈색+청록색</p>	
	 <p>개나리색+하늘색+카키빛갈색</p>	
4채자기	 <p>제비꽃색+주황색+ 카키빛갈색+짙은갈색</p>	
	 <p>다홍색+개나리색+ 청록색+카키빛갈색</p>	

5채자기	 <p>자주색+다홍색+ 꿀색+청록색+카키빛갈색</p>	
	 <p>다홍색+주황색+ 하늘색+청록색+보랏빛먹색</p>	

이러한 색채 조합의 결과 색채적 인상은 사용된 색상의 개수, 계열, 채도, 명도 등의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각 색상의 활용 면적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필법과 색상배치에 의한 일정한 색감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 Corée Déco 문양의 색채적 특징인 오색과 중화된 간색의 개념을 활용한 도자 하회안료 조합의 결과는 자수병풍의 오색과 간색에서 느껴지는 한국적 미감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고 각 색상 간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분위기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Corée Déco 장식을 통한 작품설명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Corée Déco풍 장식예술은 Chinoiserie 또는 Japonism 과 같이 구체적 개념과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세부요소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한국적 미감의 실체와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19세기 조선 자수병풍의 다양한 소재와 색채의 특성을 소재와 색상 사용의 기준에 의해 일정한 양식화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양식화 과정을 기준으로 실제 표현에 있어 구도와 소재의 배치, 그리고 색상의 선정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설정할 것인가라는 점에 있어 두 가지의 전제로 작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언급한 이 두 가지의 예를 기준으로 전통 도자장식의 참고에 의한 방법과 주관적인 제작자의 감성에 의한 작품군으로 분류하여 제작하였다. 전통 도자장식의 참고에 있어서는 도자기 장식 양식 중에 가장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크락자기<sup>9)</sup>를 모델로 문양과 구도를 인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참고도판8】 좌) 백자 청화 선인무늬 접시 (중국 명, 1605~1615,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소장)

【참고도판9】 우) 중국 크락자기 양식의 가문문장이 있는 접시 (중국 청, 1700~1720,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소장)

9) 국립중앙박물관, 『도자기에 담긴 동서교류 600년』 (2020), p.60; 중국 자기 가운데 문양 배치가 독특한 청화백자를 일컫는 말



**【작품 1】 물고기 장식 주황볼**

하회채색, 물레성형, 백자, 1250℃, 환원소성

전통적 도자기 장식 양식 중 하나인 중국의 그림 창 양식을 들레에 적용시키고 그 문양과 장식 및 색채에 있어서는 Corée Déco풍 장식양식을 사용하여 제작한 볼이다. 그림 창 양식은 【참고도판8】, 【참고도판9】와 같이 기면에 창문형태의 공간을 설정하여 안쪽에 각종 문양과 그림을 그려 넣은 방식을 말한다. 원색의 청색과 간색인 주황색, 제비꽃색, 카키빛 갈색의 4가지 색상 조합을 통해 독특하면서도 중화된 인상을 주고자 하였다.



## 【작품 2】 수초 장식 찻잔 세트

하회채색, 물레성형, 백자, 1250℃, 환원소성

잔과 소서로 구성된 찻잔세트이며 장식에 있어 중국풍의 그림 창 양식을 구도에 도입하여 강한 인상을 주고자 하였다. 문양구성에 있어서는 찻잔의 경우 수초를 주제로 간략화하여 상징적인 문양으로 표현하였으며 접시에는 수초와 물고기 문양을 그림창에 서로 반복되게 배치하였다. 창마다 물고기와 수초의 미묘한 표현의 차이를 두어 스토리가 담긴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색상 구성은 네가지 색상의 조합에 의한 개성있는 한색이 장식 전체를 지배하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 【작품 3】 수초 장식 세트

하회채색, 슬립캐스팅, 물레성형, 백자, 1250℃, 환원소성

작은 병과 항아리 그리고 주전자로 구성된 장식 세트로 전통적인 도자기 장식 양식을 참고하여 장식의 구도를 제작하였다. 특히 그릇에서 주로 보여졌던 그림 창 양식의 응용으로써 주전자의 입체성을 활용하여 전통 양식을 적용하여 재해석하였다. 또한 Corée Déco풍 만의 도식적 무늬를 추가로 장식하였는데, 이는 자개장식에서 보이는 모양을 응용하였다. 색채는 파랑계열의 간색으로 하늘색과 제비꽃색을 주로 사용하여 물 속과 수초라는 이미지에 어울리게 색채구성을 하였다.



#### 【작품 4】 물고기 장식 화병

하회 채색, 판상 성형, 백자, 1250℃, 환원소성

판상 성형을 통해 각이 진 사각의 형태로 제작한 화병으로 위, 아래로는 도식적 무늬를, 중앙에는 물고기와 수초들로 장식되어 있다. 색채에 있어서는 5가지의 색상이 활용되었는데 주로 청록색과 제비꽃색이라는 한색 계열의 사용을 통해 소재와 어울리는 시원한 분위기를 표현하였고 전체적으로 모든 색상이 간색을 활용한 점을 통해 형태와 어울리는 앤틱한 느낌도 보여주고자 하였다.



### 【작품 5】 패랭이꽃 와인잔

하회 채색, 물레 성형, 백자, 1250℃, 환원소성

동·서양의 융합을 보여주기 위해 와인잔에 한국적 느낌이 강한 패랭이꽃을 장식한 작품이다. 장식에 있어서는 회화적 표현을 통해 패랭이꽃을 표현하였지만 반복 사용을 통해 패턴화하여 미니멀한 디자인적 요소로 나타내었다. 색상에 있어서는 중화된 난색계열의 간색을 사용하고 그 채도를 높여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 【작품 6】 물고기 장식 조약돌

하회 채색, 물레 성형, 백자, 1250℃, 환원소성

형에 각을 쳐 장식할 공간을 분할하여 제작한 화병으로 물고기, 게, 수초의 모티프들로 구성된 장식 문양을 패턴화하여 적용하였다. 하나의 면에 하나의 문양을 각각 배치하고 연결되는 넓은 면적에는 패턴간 연결성을 보여주기 위해 리듬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3가지 간색으로 이루어진 색채 구성을 통해 미니멀하고 간결한 장식 패턴을 표현하였다.



### 【작품 7】 수선화 세트

하회 채색, 물레성형, 슬립캐스팅, 백자, 1250℃, 환원소성

와인잔과 플레이트로 구성된 세트로 수선화 장식을 통해 통일성을 주었다. 수선화라는 모티프의 디자인화를 통해 간결하게 묘사하고 이를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치하여 서양의 텍스타일에서 보이는 느낌을 강하게 연출하였다. 수선화라는 소재가 가지는 뾰족한 형태적 특징을 과장하고 원래의 식물과는 다른 색상의 채색을 통해 장식적 특징을 극대화 하였다. 또한 다른 작품들보다 고채도의 하늘색과 개나리색의 사용을 통해 도자기 장식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 【작품 8】 주전자 세트

하회 채색, 물레 성형, 백자, 1250℃, 환원소성

2개의 크기와 형태가 다른 주전자로만 구성된 주전자 세트로 윌리엄 모리스<sup>10)</sup>의 연속되는 구도를 한국적 표현 및 색채적 특징과 융합하여 도자기 장식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간색의 청록색, 제비꽃색, 카키빛 갈색, 주황색 그리고 다홍색의 사용으로 연속적 무늬와 유기적으로 색채 구성한 점이 돋보인다고 생각된다.

---

10) 윌리엄 모리스(1834~1896): 영국의 공예가, 산업혁명으로 인한 예술의 기계화에 반발하여 손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판, 벽지, 직물, 스테인드 글라스 등을 디자인하였다.



### 【작품 9】 빨강집 I

하회 채색, 판상 성형, 백자, 1250℃, 환원소성

판상 성형이라는 기법을 통해 제작한 화기로 건축물인 전통가옥을 모티프로 제작하였다. 장식에 있어서는 기와지붕, 창호지, 기둥, 돌, 계절을 알 수 있는 식물의 표현 등을 통해 친숙한 한국적 풍경을 나타내었다. 색채에 있어서는 이 작품에서 가장 상징적인 기와부분은 고채도의 다홍색으로 채색하고 청록색과 하늘색의 사용으로 독특하고 밝은 전통 가옥의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 【작품 10】 빨강집 II

하회 채색, 판상 성형, 백자, 1250℃, 환원소성

【작품 9】 빨강집 I의 연작으로써 같은 전통가옥을 모티프로 가지고 있는 팔각형태의 함이다. 크기 변화와 8각이라는 형의 변화를 주어 양식화된 장식이 다른 형태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식적으로 더욱 강조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넓은 전의 형태를 통해 도식적 무늬를 장식하였다. 색상에 있어서는 5가지 색상을 이용하였고, 그 중에서도 청록색과 다홍색의 대비를 통해 안티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고 생각한다.



### 【작품 11】 마을

하회 채색, 물레 성형, 백자, 1250℃, 환원소성

【작품 9】, 【작품 10】에 이어 집을 장식한 시리즈 작품으로써 제작한 3개의 화병 세트으로써 각각 다른 모습의 전통 건축물을 3개의 형에 장식하였다. 실제로 형의 높이와 부피 차이를 이용하여 장식된 집에서 느껴지는 크기감을 전달하도록 노력하였고, 작품 제목과 같이 건축물들이 모여있음을 통해서 마을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도록 구성하였다. 서로 다른 형태, 문양, 색채 그리고 시점으로 제작된 세트 구성이지만 양식화된 장식적 특징이 적용되어 통일감있는 인상을 준다.



### 【작품 12】 하늘집

하회 채색, 물레 성형, 판상 성형, 백자, 1250℃, 환원소성

물레와 판상성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제작한 타원형의 화기이다. 이 작품은 초가지붕, 창호지, 식물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한색 계열의 청록색, 제비꽃색, 카키빛 갈색이 집의 색감을 구성하고 있다. 혼합색상인 간색이 가지는 다채로운 인상의 활용을 통하여 전통 가옥의 독특하고 모던한 한국적 미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Ⅲ. 결 론

‘풍’이라는 것은 한 부류가 독특하게 지니는 문화의 형식이나 양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나 멋을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한국풍이라는 개념에 대해 대체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한 설명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한국적이라는 개념이 과거의 진부함 등으로 치부되는 경향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Corée Déco는 과거의 우리 문화가 Chinoiserie 또는 Japonism과 같이 당시에 존재했던 실체라는 가정하에 한국풍을 의미하는 용어으로써 제시한 것이다. 특히 Corée Déco 풍의 장식의 구현에 있어서는 자수병풍의 장식에서 보이는 한국적 요소의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한국풍의 도자장식을 모색해보았다.

Corée Déco 풍의 장식방법으로써는 19세기 자수병풍을 대상으로 내용 및 조형적 특징에 대한 고찰을 통한 장식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문양의 소재인 사물, 동식물, 농촌 풍경의 표현에 있어 일반 회화와는 달리 구체화된 다채로운 색감과 무늬의 설정에 의해 대상을 보다 명료하게 보여주는 미니멀적 표현 방법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주요 요인은 자수의 바느질과 실이 갖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자수 스티치의 질감과 실의 색감을 활용한 문양 및 그림의 구성은 새로운 장식표현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양 제작을 위해 자수병풍의 소재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써 ‘사물의 교체’, ‘소재의 특징 포착’, ‘소재의 상징화’라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사물의 교체에 의한 의미 또는 스토리 부여가 가능하였으며 소재의 특징

활용 여하에 따라 문양의 조형성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재의 상징화에 있어서는 주관적 감정에 의한 표현대상의 간략화 내지 생략된 표현을 통해 함축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었다.

Corée Déco 품의 색상 제시에 있어서는 19세기 자수병풍에서 사용된 오색과 간색의 활용이 주는 색채적 특징에 주목하였으며 한국적 미감이라는 기준 하에 특정의 색상을 제시하였다. 실제 도자장식을 위한 하회안료 제작에 있어서는 자수병풍에서 제시한 오색과 간색을 기준으로 12가지 색상을 제시하여 작품에 적용하였다. 이외에도 색상조합에 의한 특정 이미지의 색상제작에 있어 색상 수의 제한이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양과 색상은 조합 또는 배치 여부에 따라 특정한 형식 또는 양식화된 장식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식화의 가능성과 대유행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Corée Déco 구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품제작에 있어서는 문양과 그림 등의 장식 중심의 제작이 이루어진 관계로 도자 기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고 생각된다. 금 후 연구에서는 장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형에 대한 보완 연구를 통해 Corée Déco 품의 도자장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해가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및 도록>

- 허동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 문화』, 현암사, 2006
- 국립중앙박물관, 『왕이 사랑한 보물 독일 드레스덴 박물관 연합 명품전』, 2017
-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청화 푸른빛에 물들다』, 2014
-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관 세계도자실 도자기에 담긴 동서교류 600년』, 2020

### <학위 논문>

- 이은미, 『일본 아리타有田 지역의 청화기법을 이용한 실내도자장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11

### <웹사이트>

-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 ABSTRACT

## **A Study on the Pattern Creation in Corée Déco by Investigating the Subject and the Neutralization of the Impression of Colour**

Juha Lee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n Europe, drinking tea in Chinese porcelain became a symbol of wealth from the 17th century, meaning that Chinese porcelain was in high demand. This trend created a new phenomenon where Chinese decorative art 'Chinoiserie' developed in Europe culture in the 18th century. Furthermore, the Japanese decorative art 'Japonism(Japonaiserie)' was also in great demand in Europe and America, following the rise of Chinoiserie.

I believe that establishing these styles and terms to refer to them have significantly helped to concretely recognize the event of the East-West exchange in the 17th century and the identity of Asian culture that Europeans admired. Like 'Chinoiserie' and 'Japonism(Japonaiserie)', I am of the mind of that Korean-style decorative art should develop its own artistic characteristics as well as understandable language for the

stylization of the Korean authenticity.

In this study, I created a new definition for the Korean aesthetic named 'Corée Déco' for a stylization of the Korean decorative art to present the criterion for the pattern creation of the Corée Déco-style ceramics. In order to establish Corée Déco specific standards were presented through transformation and reinterpretation using the motifs, contents, and colours of the embroidered folding screens of the 19th century.

Specifically, the works were produced through investigating the subjects in three categories and neutralized colour impression of traditional embroidered folding screens in the 19th century. Based on this, I developed three specific standards for the patterns in the Corée Déco-style ceramics.

In addition, the objective data of neutralized colours through experiments with underglazes and using a limited number of colour compositions were used for designing the new colour palette for Corée Déco.

The production of works studied in this dissert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sections. One is a group of pieces that reinterpret a traditional Chinese ceramic decoration style and apply the Corée Déco-style patterns and colours to them. The other is a group of pieces that are about the creator's own formative perspectives. The tablewares and the interior items were created by applying the Corée Déco style in the ceramics throughout this study.